

책자형 선거공보

옥천군의회의원선거
옥천군 가선거구 옥천읍(금구, 양수, 마암, 대천, 삼청)
안남면, 안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진보당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군의원!**

5 **손은십**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옥천군의회의원선거 (옥천군가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5	진보당	송운섭	남	1965.02.28. (61세)	옥천군의회 의원	서울대학교 원예학과 졸업	(현)제9대 옥천군의회 산업경제위원장 (현)읍면자치 공동행동 회원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424,698	208,957	215,741	해당없음	고지거부 (독립생계)	육군 병장 (만기전역)		

3. 세금 납부 ·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7,109	0	0	- 해당없음
후보자	1,149	0	0	
배우자	264	0	0	
직계존속	해당없음			
직계비속	5,696	0	0	

4. 소명서

존경하는 옥천읍(금구, 양수, 마암, 대천, 삼청),
안남면, 안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든든한 일꾼, 송윤섭입니다!

지난 4년, 부지런히 현장을 누볐습니다.

논두렁에서, 마을 회관에서 여러분의 손을 맞잡으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충북농민수당을 만들고 농어촌기본소득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밥 한 끼”에서 시작해 “온생애돌봄”까지 이어가겠습니다.

4년간의 의정활동을 밑거름 삼아

주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옥천을 만들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송윤섭”

어려운 순간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삶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촘촘한 정책 설계와

뚝 부러진 일 처리로 옥천의 내일을 빈틈없이 완성하겠습니다.

따뜻한 결이 되어드리는 것을 넘어, 검증된 실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6월 3일,

다시 한번 **송윤섭**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주민 가까이에서 더 뜨겁게 발로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던 곳에서 평생을, 통합 돌봄

안남·청산·청성·동아·군북에서 시작한 **경로당 공동급식**, 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경로당 공동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의 식사를 넘어 우리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통합 돌봄'**의 기본부터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 ▣ 경로당 공동급식 지속 지원 및 확대로 먹을거리 돌봄체계 구축
- ▣ 통합 돌봄 복지센터 건립하여 온생애돌봄 기능 강화
- ▣ 마을순환 전기 저상버스로 이동권 보장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우리 동네



이장과 마을공동체 대표를 거쳐 군의원까지, 언제나 주민의 곁에서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우리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이곳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군의원 역할은 주민 위에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군의원이 뒷받침하는 동네, 직접 해본 실력으로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 농어촌기본소득, 옥천 맞춤형으로 '정착'

☑ 주민이 직접 만드는 읍·면 발전계획 수립

☑ 주민의 아이디어가 예산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 대폭 확대

걱정없이 농사짓는 지속가능한 농촌



40여 년 전, 대학교를 마치고 옥천으로 내려와 지금까지 흠을 만지며 살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농업 정책은 믿지 않습니다.

저는 농민들과 함께 농민수당을 직접 만들었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필수농자재 지원,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발의 등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직접 해본 실력으로, 옥천 농민의 자부심과 농촌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 ☑ 농민수당 120만원 모든 농민에게 지급
- ☑ 농기계 임대 사업 및 농작업 서비스 확대
- ☑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 기획 생산 체계 구축

누구나 오고 싶고 계속 살고 싶은 마을



“
불과 4년 사이, 30여 가구뿐인 저희 마을에서 12명의 주민이 이사나 사망으로 줄었습니다. 집집마다 사정을 다 아는 이웃이기에 그 빈자리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마을이 작아지게 두지 않겠습니다. 떠나는 마을이 아니라 **누구나 오고 싶고, 계속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을 소중히 챙기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 ▣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 및 청년 정주 여건 마련
- ▣ 마을돌봄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강화
- ▣ 이주민들의 노동, 생활, 주거 안정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상담센터 설립

송운섭과 함께 행복한 상상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전) 도덕2리 이장
- 안남배바우공동체 대표
- 안남어머니학교 교장
- 옥천군농민회 회장
- 옥천군 학교급식운동본부 대표
-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위원
- 충북농민수당추진위원

- 현) 제9대 옥천군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읍면자치 공동행동 회원
- 옥천군 먹거리주민연대 회원
- 옥천군 친환경농업협회 회원
-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 회원
- 안남두레상사회적협동조합 회원



- ☑ 사전투표일 : 5월 29~30일
- ☑ 투표일 : 6월 3일



5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군의원!

송운섭